

8 인터뷰-이송 신임 총동문회장

총동문회는 협조자 동문 마음속 잠자는 경희정신 되살릴 것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새롭게 선출된 이송(의학 74) 신임 총동문회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그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량리 서울 성심병원을 찾았다. 그는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가야대학 교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의대 동문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이 회장은 총동문회장 취임 후 주력하고 있는 첫 업무로 인선 작업을 꼽았다. 그는 “임원진과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임 회장과는 학번으로 10년가량 차이가 있는데 60년대 학번과 70년대 학번은 우리 학교에 대한 인식부터 동창회의 방향성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60년대는 우리학교가 대학다운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급속한 양적 성장이 이뤄진 시기라면, 70년대는 내실을 다지는 질적 성장이 이뤄진 시기였다는 차이가 있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현재 대학을 이끌어나가는 일선의 교수, 직원들과 동문회 운영진의 세대가 비로소 맞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당시를 떠올리면 이 회장은 “주변에서 총동문회장을 해보라고 권하기에 주대 형식으로 선출하는 줄로 알았다”면서 “실은 선거를 나갈 생각은 없었다”고 말하며 웃었다. 그는 “총동문회장이라면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뜨겁고 동문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는 본업으로 바쁘기도 하거니와 경희대를 나왔다는 사실에 자긍심은 있어도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

문들에게 총동문회장 후보로서 표를 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만큼 열렬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마를 권하는 주변인들이 많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차에 코로나로 인해 동문회장 선거도 일정이 미뤄지면서 약 8개월가량 고민해 볼 시간을 갖게 됐다. 그는 “고민하던 기간 동안 밖에서 보던 것과 달리 총동문회의 조직, 재정 등이 많이 무너져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대로 둘 수는 없겠다는 마음에 결국은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면서도 “예상치도 못 한 큰 지지를 보내 준 동문들의 표심에 새삼 무거운 소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전임 회장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 6월 ‘경희대 총동문회 정상화추진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정당한 근거가 부족한 총동문회 예산 지출, 회원과의 소통 부족, 편재에 없는 자의적인 인선 등을 사례로 거론하며 전임 회장이 총동문회를 사조직처럼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그런 우려를 표한 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분들의 목소리도 잘 새길 것이다”라면서도 “새로 회장을 맡은 입장에서 지난 집행부의 행적에 구체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맞은 동문회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해 앞으로 분발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사회 각계 각종의 핵심부에서 크게 활약하는 동문들이 정말 많이 계신다”면서 “경희동문의 역사에서 가히 가장 빛나는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동문들이 많은데 그들이 경희인이라는 자각을 갖도록 하고, 일종의 가치 공동체로서 동문을 한데 묶어주어야 할 총동문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이 회장은 “지금 총동문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희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



이송 신임 총동문회장은 “임원진과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김창호 기자)

는 동문들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경희정신’에 대해 설명하는 그의 태도는 열의가 넘쳤다. 신흥 초급대학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인한 부산 피난 시절과 조영식 전 이사장의 인수, 판자로 지은 임시 교사(校舍)에서 학생을 받은 이야기 등 학교의 역사를 막힘없이 풀어냈다. 그는 “어려운 시기 재정적 궁핍 속에서도 ‘문화세계의 창조’를 꿈꿨던 우리 학교의 정신은 바로 고난에 굽하지 않는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동문들의 마음 속에 잠자는 그 경희정신을 일깨울 수 있을 때 동문들이 총동문회를 다시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 개설 등 다방면으로 동문들과 접촉면을 늘리고 홍보와 소통에 각별히 힘쓸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학교 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총동문회가 해야 할 역할은 더없는 협조자가 되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장선출을 비롯해 대학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지는 지금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나”라면서 “총동문회는 어디까지나 학교 밖에서 학교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동문을 비롯해 재학생과 교수, 직원 등 구성원들을 향한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그간 총동문회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 분들도 많았겠지만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하려 하니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가 다소 부족했던 점이라면 구성원 스스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했던 것 아닌가 싶다”며 “구성원들이 스스로 가치를 펼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총동문회의 마땅한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송 신임 회장은 현재 청량리 소재 서울 성심병원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사진=김창호 기자)